2016 호루라기상(공익제보 부문)

- 해상벙커C유의 불법 유통 사실을 제보한 신인술 씨



○ 선정 사유

공익제보 부문 호루라기상 수상자는 유류 불법 유통 공익제보 사례인 신인술 씨입니다. 신씨는 유류운송회사에서 해상벙커C유를 불법으로 혼합하여 유통시킨 사례를 2016. 8. 26.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팀에 고발하여 현재 이헌철 사장 등 관련자 5명이 구속됐습니다. 해상벙커C유는 황이 일반 벙커C유와 비교하여 13배가 높은데다 각종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기 때문에 육상에서는 유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유류입니다.

특히 이 건 신고는 검찰과 세무서의 부실수사 및 은폐 행위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신고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회사 쪽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신씨는 2016. 11. 7. 이번 사건을 부실 수사했거나 은폐하려 한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의 해당 검사와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신인술 씨의 내부고발 사례가 유류 유통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집행기관의 부패 및 나태를 고발하여 공익과 인권을 위한 사회적 기여와 파급효과가 큰 반면 공직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희생이 매우 큰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해상벙커C유는 대형선박에서 사용 후 남은 해상용 중유로 일반벙커C유에 비해 황이 13배나 많이 포함되어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육상에서 판매·유통이 금지된 기름이다.

○ 제보사건 소개

2015. 1. 26., D에너지에서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신인술 씨는 입사 2개월 후 자신이 운반하는 기름이 육상에서 유통이 금지된 해상벙커C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신인술씨는 2015년 8월 4일 사표를 내고, '가짜 전표' 를 만들라고 지시한 파일과 거래처 출입고 내역 등 7개월간 모은 자료를 2015. 8. 5. 부산지방국세청에 신고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회사가 위치한 동울산세무서로 사건을 이첩하였고, 동울산세무서는 1개월가량 조사 뒤, 신인술씨와 함께 2015년 10월 울산지방검찰청에 신고했다. 2015년 11월~12월 사이 울산지검에서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신인술 씨는 2016년 1월 검찰청에 사건처리 결과를 문의하였으나 검찰청은 "사건 자체가 접수된 적이 없다" 는 답변을 하였고, 동울산세무서는 "검찰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수사요청만 했다" 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다. 또한 2016년 7월 25일 동울산세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마쳤다" 며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는 사이 신분이 노출된 신인술 씨는

2016년 6월 초부터 사장과 공장 책임자로부터 수차례 협박전화와 회유를 받고, 신변에 불안을 느껴 5개월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대표 김용환)의 자문을 받아 신인술 씨는 2016. 8. 26.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다시 고발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 D에너지가 해상벙커C유를 전북 군산·경북 영주·경남 양산 등지의 주공아파트 단지(5,000세대)와 전국 40여개 아스콘 공장에 보일러(가열기) 연료유로 유통시키고,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차량용 연료유로 판매하는 등 약 4,100만 리터(시가 270억 원 상당)를 불법유통·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 2명을 구속하고 40명을 검거했다.

○ 수상자 소감

먼저 추천해주신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의 김용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선정해주신 심사위원들을 비롯한 호루라기재단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지난해와 올해는 50대 중반의 생을 살면서 최악의 고통스런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오늘은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가 국내 유명 정유사의 전표를 위조하여 전국 34곳의 아스콘공장과 주공아파트단지 4곳에 불법 해상벙커C류를 납품한 것을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회사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면서 엄청난 탈세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유와 석유를 혼합하여 정상 기름인 것처럼 아스콘공장에 납품하여 덤프트럭, 레미콘차량에 주유하여 탈세 및 대기오염을 일으켰습니다. 이 회사는 경남 창녕에 위치하여 자연청정 지역인 우포늪과도 멀지 않습니다.

모든 보고 및 지시내용은 단체 카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입사한지 두달째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주공아파트에 납품하러 갈 때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 계시는 모습과 초등학생, 임산부의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7개월 동안 단체 카톡 내용, 거래처 입출고내역, 새벽에 해상에서 몰래 기름을 받아오는 기사의 증언까지 확보하여 제보하였습니다.



제보를 했어도 아무런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신분이 드러났고, 회사쪽은 저에 대해 살해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가족들 이름 하나 하나 들먹이면서 협박했습니다. 그러다가 통하지 않으니까 한몫 챙겨주겠다고 회유도 하였습니다. 저의 집 부근까지 저를 잡으려고 4~5명이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저는 5개월 정도 강원도 통도사, 포항 등지로 도피생활을 하였습니다. 일당을 받으면서 밭에서 날일도 했고, 대리운전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7~8월 그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담배 사러가는 것도 주위를 살펴야 했고, 자식들이 떠오르면 "아버지로서 돈도 벌어다주지 못하고 이제는 이렇게 위험에까지 빠뜨리게 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도 괴로워 자살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조직적 은폐까지 더해져 주공 아파트 4곳의 주민 수천 명의 건강이 위협 받고, 가짜 기름 유통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생각할 때 끝까지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청와대, 국민권익위, 언론사, 국회사무실에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하였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겪다 김 대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의 도움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해 다시 고발하여 두 달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제보자로서 1년3개월 동안 사건 진술을 위해 세무서 검찰청 등에 21번을 가야 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더 소환 받고 진술을 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보 후에 어려웠던 점은 세무서와 검찰에서 은폐 사실을 알려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살해 협박의 공포 속에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서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여태껏 상이라곤 한 번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명예로운 상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이 공익신고로 인해 고통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의로운 재단이 있고 정의로운 시민연대가 있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눈감지 말고 좀 더 나은 세상를 위해 힘을 합치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